

# 온조왕[溫祚王]

## 백제의 건국 시조

미상 ~ 28년(대무신왕 10)



송렬전 온조왕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 1 개요

온조왕은 백제의 1대 왕이다. 온조왕 설화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들이라서 남하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낙랑과 말갈의 공격을 격퇴하고, 마한의 일부 영역을 차지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 2 온조왕의 백제 건국 설화

백제의 건국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간략한 건국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북부여(北扶餘)에서 졸본부여(卒本扶餘)로 와서 졸본부여왕의 딸과 혼인하여 비류(沸流)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얻었는데,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얻은 아들 유리(瑠璃)가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무리를 이끌고 남하하였다. 그러나 정착할 장소를 결정할 때 비류와 온조의 주장이 엇갈려 비류는 미추홀(彌鄒忽)에 머물렀고, 온조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하여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는데, 이때가 기원전 18년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추홀의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비류 집단이 비류가 사망한 후 온조에게 귀부하였다. 후에 국호를 백제로 고쳤고,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왕실의 성씨를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삼국유사』에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관련사료](#)

백제의 건국 설화는 신라나 고구려와 달리 상당히 건조하게 서술되어 있다. 고구려의 경우 주몽의 고귀한 혈통이나 그의 신이한 능력이 주몽 설화에 표현되어 있고, 신라의 혁거세 설화도 마찬가지로 혁거세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백제의 건국 설화는 온조의 혈통에서 신성성을 강조하지도 않고, 온조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는다는 점이 독특하다.

### 3 다양한 백제의 건국 설화

그런데 백제의 건국 설화에서 더욱 특이한 점이 있다. 고구려와 신라가 하나의 건국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백제는 온조 외의 다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건국 설화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비류를 시조로 하는 건국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위에서 살펴본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의 건국 설화에 부가되어 있는 설화로 보면 부여에서 온조 건국 설화와 차이점